

서울의료원은 1월 19일자

계약해지를 철회하라!!

서울시는

-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
(상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)
-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완료될 경우
-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라

서울의료원은 2012년,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일부 병원 직원의 가족을 무시협 입사시킨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채용비리를 저질러 전체 직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. 이후에도 매년 무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. 특히 올해 초 계약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또 다시 서울시 지침을 무시한 채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 14명에게 그 어떠한 평가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.

비정규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서울의료원의 해고 남발에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.

1년, 2년을 일했는데 일방적 계약해지... 무슨 이유로!! 왜!!

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울리지 마라!! 그들도 가정을 책임지는 ‘가장’이며 이 사회의 ‘구성원’이다. 어느 누구도 그들의 노동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.

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시청 앞 피켓팅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의료원은 또 다시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. 도대체 기업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?

교섭대표인 기업노조는

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부터 해결하라!!

병원은 지침을 이행하고 고용안정보장하라